

부모간 양육태도 불일치가 고등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중재효과와 행동억제체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유 제 민
강남대학교

최 신 혜
삼육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간 양육태도 불일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의 행동 억제 성향과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검증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고등학생 480명(남: 186, 여: 294)이었으며, 그들의 연령 분포는 만 15세에서 19세($M=16.58$, $SD=.82$) 사이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리검사는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형태 검사,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 한국판 BAS/BIS 척도, 및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이다. 분석 결과, 부모간 양육태도 불일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였다. 부모간 양육태도 불일치와 사회불안간의 관계에 자기효능감의 중재효과가 있었다. 또한, 행동억제체계는 부모간 양육태도 불일치와 사회불안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자기효능감과 행동억제체계의 중재 및 매개효과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도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간 양육태도 불일치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과정에서의 자기효능감 증진 및 탈동일시에 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부모간 양육태도 불일치, 행동억제, 자기효능감, 사회불안

* 이 논문은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서경현, 삼육대학교 상담학과, (139-742)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6-21
Tel : 02-3399-1676, Email : khsuh@syu.ac.kr

청소년 자녀를 둔 한국의 부모들은 행복한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녀에 학업을 거정한다. 그러나 청소년기부터 증상을 보이는 사회불안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부모는 드물다. 그것이 학업 수행에 영향을 주고 문제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사회불안이 학업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허재홍, 조용래, 2005; Last, Hersen, Kazdin, Orvaschel, & Perrin, 1991; Stein, Walker, & Forde, 1996).

DSM-IV에서는 사회불안을 불안장애 중에 사회공포증으로 구분하여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사회적 상황이나 활동 상황에 대한 현저하고 지속적인 두려움, 즉 개인이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타인에 의해 주시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개인들은 자신들이 수치스럽거나 당혹스런 방식으로 행동할까봐 (또는 불안 증상을 보일까 봐) 두려워하는 장애”로 기술하고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그런데, 이 사회불안이 적절한 개입이 없을 경우 만성적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Schneider, Johnson, Horing, Liebowitz, & Weissman, 1992: 문혜신, 오경자, 2002에서 재인용).

부적절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를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하게 만들어 대인관계에 문제를 갖게 한다는 것은 여러 차례 증명된 적이 있다(허재홍, 2006; Bruch, Heimberg, Berger, & Collins, 1989; Parker, 1979). 특히 아버지가 거부적인 태도를 가졌을 때 자녀가 사회불안을 느끼고 대인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도 있었다(Arrindell et al., 1989; Parker, 1979). 그리고 Bruch 등(1989)은 부모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자녀의 대인관계를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으면 자녀가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밝혀냈고, 그는 계속해서 이 점을 재확증하였다(Bruch & Heimberg, 1994). 오경자와 양윤란(200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사회불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사회불안간의 관계에 매개 혹은 중재하는 변인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부모 양육태도와 사회불안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발견했던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양육태도 척도와 다른 척도를 사용했기 때문일 수 있다. 참고로, 오경자와 양윤란의 연구(2003)에서는 수치심, 타인시선, 비사교성을 하위변인으로 하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부모의 양육태도 그 자체보다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또 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크건 작건 간에 결정해야 되는 일이 끊임없이 생기게 된다. 그 과정에서 부모간에 생각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야 할지 혹은 어떤 종류의 유치원에 보내야 할지의 문제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다. 여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부모들은 자신의 생각이 배우자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조율하려고 할 것이다. 부부간에 가장 논쟁의 주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자녀양육이다. 양육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겉으로 나타나게 되면 아동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특히, 유아나 학령전 아동들은 부모의 정서에 아주 민감하고 성인의 분노 표현에 매우 좋지 못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tz, 1988).

스트레스에 관한 인지적 이론(Lazarus &

Folkman, 1984)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의 갈등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을 양육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모간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스트레스는 정서적 혼란을 야기하고 문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Tschann, Flores, Pasch, & Marin, 1999). 예를 들어, Grich와 Fincham(1993)은 자녀와 관련하여 부모간에 갈등이 생기면 자녀는 수치심과 자책감을 심하게 느끼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런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행동으로 의현화 될 수 있다는 것이 선행연구들에서 증명되었다(Shaw, Vondra, Hommerding, Keenan, & Dunn, 1994; Shaw, Winslow, Owens, & Hood, 1998; Weiss, Dodge, Bates, & Pettit, 1992). 본 연구자들은 사회성과 성적 정체감 등 여러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부모간의 양육태도 불일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려고 하였다. 이 시기에는 입시 혹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아동기부터 발달되어 온 심리적 문제가 표출될 수 있고, 문과나 이과, 더 나아가 자신의 대학 전공 영역을 선택하는데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에 대한 부모의 의견에도 불일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에 사회성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한다면 성인기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Jouriles와 Murphy(199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결혼적응으로 조절하였을 때 부모간 양육태도 불일치가 자녀의 행동문제의 변량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결혼관계가 원만하면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어도 자녀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종단연구(Ingoldsby, Shaw, Owens, & Winslow, 1999)를 통해 자녀가 3-4세 경에 심한 부모의 갈등을 경험했다면 부모간의 공격적인 발언과 신체적 공격이 부모간 양육태도의 불일치보다 성장하면서 보이는 문제 행동과 더 관계가 있었지만, 부모간 갈등 수준이 심각하지 않을 때는 부모간 양육태도의 불일치가 자녀의 문제행동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 연구로 부모간의 양육태도 불일치와 자녀의 문제행동의 관계에 부모간 갈등수준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부모간 갈등과 자녀의 문제행동 사이에서 부모간 양육태도 불일치가 중재변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Gomulak-Cavicchio, Davies, & Cummings, 2006). Sturge-Apple, Davies, 및 Cummings(2006)의 연구에서는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줄 수 없고 자녀 양육 원칙에도 일관성이 없게 되는데, 그런 관계에서 부모간 양육태도 불일치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간 양육태도 불일치와 자녀의 행동문제간의 관계에 어머니의 공격적 발언이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Lee, Beauregard, & Bax, 2005)는 그런 관계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부모의 결혼적응과 자녀의 행동문제간의 관계에서 부모간 양육태도 불일치가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O'Leary & Vidair, 2005).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는 부모간 양육태도 불일치를 매개변인 혹은 중재변인으로서 조명되었지만, 그 자체에 관해서도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자녀의 문제행동이나 정신건강에 영향이 미치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부모간 양육태도 불

일치를 주제로 한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행동을 억제하는 기질이 사회불안의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증명한 연구들이 있었다(오경자, 양윤란, 2003; Chess & Thomas, 1999; 허재홍, 2006에서 재인용; Hayward, Killen, Kraemer, & Taylor, 1998; Mick & Telch, 1998). 인간에게는 처벌과 위협 단서에 민감하여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심리적인 멈춤 혹은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행동억제체계(BIS: behavioral inhibition system)가 있다(Gray, 1990). 이 체계는 불안 관련 단서들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여 현재 진행 중인 행동이나 계획했던 행동을 그만 두게 하거나 행동을 계획하지 않게 환경에서 다른 위협 단서들을 찾도록 유도하는 동기체계로서, 뇌의 중격(septum)과 해마(hippocampus), 그리고 세로토닌 경로와 관련이 있는 것을 알려져 있다(김교현, 김원식, 2001). 이 체계가 친숙하지 않은 상황이나 사람에게 접근하는 행동을 철수시키고 낯선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한 중단연구(Schwartz, Snidman, & Kagan, 1999)에서는 아동기 초기에 행동억제 성향이 높은 경우 청소년기에 사회불안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 행동억제 성향이 높은 아동들이 청소년기에 모두 사회불안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허재홍(2005)의 연구에서는 행동억제 성향은 사회불안과 특별한 관계가 없었다. 행동억제체계가 지능 등과 같은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Asendorpf, 1994), 이 체계와 사회불안간의 관계에 그런 변인들이 조절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허재홍, 2006). 그러나 본

연구자들은 행동억제체계가 사회불안에 대한 부모의 영향을 중재 혹은 매개 하는 변인일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부모가 자신을 양육하는 것과 관련하여 논쟁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면서 성장하면 사회 상황에서 행동을 억제하려는 성향이 강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럴 경우 성장과정에서 행동활성화체계(behavioral activation system)보다는 행동억제체계가 발달할 수 있다. 행동억제 기질이 성장하면서 환경적 원인에 의해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Kagan & Snidman, 1991).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부모의 양육태도 불일치와 청소년기, 특히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의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행동억제 기질이 매개변인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개인이 낼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자기효능감이라고 하는데(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은 대인관계나 사회성과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ndura, 1986; McDonald & Parke, 1984).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이다(조명숙, 이영호, 2001; Edelman, 1985). Wallace와 Alden(1997)에 따르면 사회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이 도달해야 하는 기준을 높게 잡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즉 사회적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이다. 그런데,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차례 증명되었기 때문에(문혁준, 1999; 우희정, 이숙, 1994; 전인옥, 1997), 부모 간 양육태도 차이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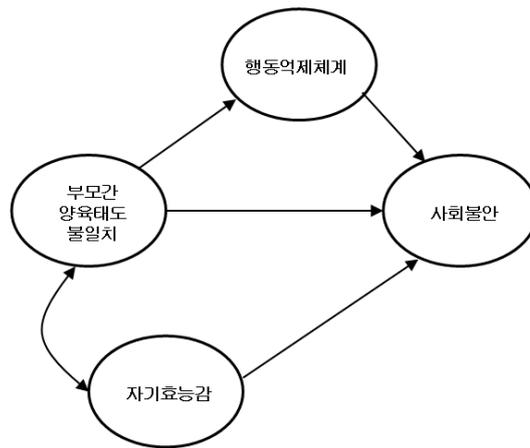


그림 1. 자기효능감과 행동억제체계를 통한 부모간 양육태도 불일치와 사회불안의 이론적 모형

효능감이 매개변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수행능력이나 수행 결과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낮아질 수 있고(Bandura, 1977), 부모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하는 수행 결과로 낮은 자기효능감을 갖은 자녀 때문에 부모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 양방향 인과관계, 즉 중재적 관계를 가정하였다.

양육불일치가 역할의 분화가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한국의 부모들에게서 나타날 가능성을 확인하고, 안정된 개인의 특성인 행동억제라는 기질과 자기효능감이라는 인지적 변인의 역할을 따로 구분하여 사회불안이라는 혼란 증상을 설명하는 통합 모델을 구성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모간 양육태도 불일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 관여하는 행동억제 성향과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검증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대안 모델을 설정하고 적합성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독립적인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검증한 후 통합한 모델을 중심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한 변인들을 추가함으로써 효율성을 판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지금

까지 자기효능감과 행동억제 간에 이론적인 관계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었으나 본 연구의 표집에서 자기효능감과 행동억제의 관계가 시사되었다는 점 때문에 경로의 추가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는 이론적 모형을 가정하였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5개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업계 고등학생들을 배제하고 인문계 고등학생들만을 선택한 이유는 문과나 이과, 그리고 입시에서 선택할 전공 영역의 선택과 관련하여 부모의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총 503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할 수 있었으나 불완전한 자료는 제외하여 최종 분석에 포함된 참여자 수는 총 480

명(남학생 186명, 여학생 294명)이었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480명의 연령은 만 15세에서 19세($M=16.58$, $SD=.82$)까지 분포되어 있다. 학년별 참여자 수는 1학년 84명(남학생 33명, 여학생 51명), 2학년 268명(남학생 113명, 여학생 155명), 3학년 128명(남학생 40명, 여학생 88명)이었다. 가능하면 성비와 학년 비율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사정상으로 여학생과 2학년 학생들로부터 더 많은 설문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설문에 응답하기 전 담임 교사와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정보의 누출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리고 참여에 동의를 구하였다. 참여자들에게는 연구 참여를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알렸으며, 참여자들이 설문 과정에서 소비한 시간은 약 25분이었다.

자료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 불일치의 각 하위 차원(애정, 과잉간섭, 자율성존중)과 사회불안(부정적 평가두려움, 새로운 상황두려움, 일반적 상황두려움)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 및 행동억제체계(BIS)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경로분석을 통해 중재와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후 확인된 경로 모형을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s) 4.01 v(Arbuckle, 2000)를 이용한 공변량 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으로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현재까지 모델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나타내는 최상의 지수(index)에 대하여 연구자들 간의 일관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Hoyle & Panter, 1995),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의 적합도 지수를 함께 제시하였다(Bollen,

1989). 본 연구에서 모델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지수는 χ^2 , 기초부합치(Goodness of Fit Index: GFI), 조정부합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비교부합치(Comparative Fit Index: CFI), 간명성 부합치(Parsimony Goodness of Fit Index: PFI), 근사평균 오차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이었다.

측정 도구

부모양육태도

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Parker(1979)의 부모-자녀 결합형태 검사(PBI: Parental Bonding Instrument)를 송지영(1992)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것을 기초로 문경주와 오경자(2002)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재의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을 평가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들이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일부 문항을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래 본 척도는 성인을 대상으로 회고적 자기보고를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을 평가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16세까지의 기억을 토대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해 각각 25문항씩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Parker(1979)와 송지영(1992)의 연구에서 돌봄(care)과 과보호(over protection) 2개의 요인구조가 나타났지만, 문경주와 오경자(2002)의 연구에서는 애정, 과잉간섭, 자율성 존중 3개의 요인구조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도 부모 각각 양육태도의 25개 문항을 기존의 이론적인 연구(오경자, 문경주, 2002)를 참고하여 요인의 수를 3개로 고정시킨 후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본적절성 측정치인 Kaiser-Mayer-Olkin(KMO)값이 아버지(.916)이

고, 어머니(.914)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통계치가 부모 모두 $p < .05$ 로 나타나 자료의 상관성이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부모 각각의 측정치에서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35이하인 문항이 양 부모 중 하나라도 있는 4, 8, 9, 10, 16, 20번 문항을 제외한 후, 제 1요인은 '애정'(9개 문항), 제 2요인은 '자율성 존중'(7개 문항), 제 3요인은 '과잉간섭'(3개 문항)이라고 명명하였다. 세 개의 요인 구조는 전체 변량의 50.12%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애정, 과잉간섭, 자율성 존중 각각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각각 아버지 .84, .71, .82, 어머니 .81, .74, .86 이었다.

사회불안

본 연구에서는 사회 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LaGreca(1998)의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 SAS-A)를 오경자와 양윤란(2003)이 우리말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나는 주위에 사람들이 몇 명만 있으면 긴장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한다" 등 대인관계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나타내는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평정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는 18-90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의 정도가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오경자와 양윤란(2003)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평가 두려움(7문항), 새로운 상황 두려움(4문항), 일반적 상황 두려움(2문항) 세 요인으로 나뉘었다. 본 연구에서도 제 1 요인은 '부정적 평가 두려움'(8개 문항), 제 2 요인은 '새로운 상황 두려움'(4개 문항) 그리고 제 3 요인은 '일반적 상황 두려움'(2개 문항) 요인으로 구분되었다(KMO = .925, Bartlett의 구형

성 검증 통계치 $p < .05$). 세 개의 요인 구조는 전체 변량의 60.88%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각각 .89, .81, .81이었으며, 전체 척도는 .94였다.

행동억제체계

대상자의 행동억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Carver와 White(1994)의 척도를 김교헌과 김원식(2001)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한국판 BAS/BIS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점 평정척도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위척도로는 행동억제(behavioral inhibition: 7문항), 보상민감성(reward responsiveness: 5문항), 추동(drive: 4문항), 재미추구(fun seeking: 4문항)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동억제 하위변인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김교헌과 김원식(2001)의 표준화 연구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렴 및 변별 타당도와 예언타당도를 나타냈다. 재검사 신뢰도는 평균 .79이상이었으며 내적일치도의 평균도 .78이었는데, 본 연구에서의 행동억제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는 .74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Jerusalem과 Schwarzer(1992)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척도를 이영민이 번안하여 Schwarzer와 Jerusalem이 함께 한국판 척도로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표현하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응답은 1-'전혀 아니다', 2-'거의 아니다', 3-'대체로 그렇다', 4-'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점수의 범위는 10에서 40까지이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8이었다.

결 과

부모간 양육태도 불일치와 자기효능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모간 양육태도 불일치와 사회불안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기효능감이 중재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것은 독립변인(A)이 종속변인(C)에 영향을 미치지만 중재변인(B)이 독립변인과 작용하여 종속변인의 변화량을 좌우하는 관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부모간 양육태도의 불일치를 자기효능감이 조절하면서 사회불안의 양상을 좌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를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먼저 부모간 양육태도 불일치와 자기효능감을 투입한

후에 이 둘 간의 교차 항을 투입하고 종속변인인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변량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부모간 양육태도 불일치는 사회불안을 14.4% 예측하며, 자기효능감은 사회불안을 4.3% 예측하며, 양육태도 불일치와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이 사회불안을 0.9% 예측하였다. 즉, 부모간 양육태도 불일치와 자기효능감의 교차 항을 투입했을 때 R^2 증가분이 사회불안을 유의하게 설명하여($\beta = -.69, p < .01$) 중재효과가 확인되었다.

부모간 양육태도 불일치와 행동억제체계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모간 양육태도 불일치(A)가 사회불안(C)에

표 1. 사회불안에 대한 양육태도불일치와 자기효능감의 중재적 회귀분석 결과

투입순서	독립변인	R ²	R ² 증가분	F	β
1	양육태도불일치(A)	.144	.144	23.13**	.24**
2	자기효능감(B)	.187	.043	31.86**	-.32**
3	A × B	.196	.009	27.09**	-.69**

** $p < .01$.

표 2. 사회불안에 미치는 행동억제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변인관계	R ²	R ² 증가분	β
독립변인: 양육태도불일치(A) 종속변인: 행동억제체계(B)	.186		.20**
독립변인: 양육태도불일치(A) 종속변인: 사회불안(C)	.123		.16**
독립변인: 양육태도불일치(A) 행동억제체계(B)	A → C	.110	.13**
행동억제체계(B) 종속변인: 사회불안(C)	B → C	.069	.07*

* $p < .05$, ** $p < .01$.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고, 행동억제체계(B)가 사회불안(C)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며, A와 B의 교차 항이 유의하다. 특히 A와 B의 상관 이 높다면 중재라기보다는 매개일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 구의 요인들 간에 이 가능성이 시사되어 표 2 에 이를 검증하였다.

매개효과가 입증되려면 $A \rightarrow B$ 가 유의하고, $A \rightarrow C$ 도 유의미하며, A, B도 독립변인으로 C 를 설명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단 $A \rightarrow C$ 에서 A의 설명량보다 A, B $\rightarrow C$ 에서의 A의 설명량이 작아야 한다(Baron & Kenny, 1986).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A, B $\rightarrow C$ 에서 B가 매 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2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행동억제체계는 부모 간 양육태도의 불일치와 사회불안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재효과가 입증된 자기효능 감과 매개효과가 확인된 행동억제체계를 모두 고려하여 부모간 양육태도의 불일치가 사회불 안에 미치는 경로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였다.

요인 간 관계와 모형 구성을 위한 가정의 검증

모형을 구성하기 위한 각 하위 요인(측정변 인)들의 상관계수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주성분 분석의 특성 때문에 요인들이 서로 직 교 차원을 이루고 그 경로가 한 요인에 높은 부하량을 보이고 다른 요인들에 낮은 부하량 을 보이는 측정변인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독 립적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각 변인들은 원점 수가 아니라 요인분석으로 묶인 단순 합산 평 균값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Kolmogorov-Smirnov 검증 결과 $K-S(df=478)$ 의 각 측정 변인들의 범위가 1.45에서 2.53로 정 상분포를 가정할 수 있었으며($p>.05$), Durbin-Watson의 값도 1.85정도가 산출되었다. 이 값 이 1에서 2사이인 경우 오차항의 자기 상관이 없는 것(즉, 잔차의 독립성)으로 간주하기 때 문에(Dillon & Goldstein, 1984), 이 모형에서는 다변량 정상성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모 수 추정방식으로 최대 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 ML)을 사용하기에 큰 무리

표 3. 각 측정변인의 상관계수

변 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애정불일치								
② 과잉간섭불일치	.97**							
③ 자율존중불일치	.51**	.45**						
④ 자기효능감	-.27**	-.22**	-.32**					
⑤ 행동억제체계	.13**	.14*	.09*	.11*				
⑥ 평가두려움	.19**	.17*	.11*	-.31**	.25**			
⑦ 새상황두려움	.21*	.12*	.18*	-.20**	.15*	.35**		
⑧ 일반상황두려움	.18**	.09	.08	.18*	.20**	.22**	.19**	

* $p<.05$, ** $p<.01$.

가 없었다. 또한 측정 변인의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된 추정치를 구하기 위해 상관 행렬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통합모형의 구성

그림 1의 이론 모형을 토대로 측정 변인들을 모두 포함시킨 통합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이 모형은 자유도 15, 카이자승 45.266, GFI=.901, AGFI=.893, CFI=.911, PFI=.699, RMSEA=.081로 나타나 우수한 모형이었다. 자기효능감이 행동억제체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그 경로를 추가하여 비교하여 보았다. 이 경로를 추가한 모형은 자유도 14, 카이자승 47.271, CFI=.927로 나타났다. SCDT(카이자승 차이 검증치는 서로 포함관계(nested relationship)에 있는 모형들을 비교하는 기초적인 통계치로서 자유도의 상실(작은 모형에서 큰 모형로

에도 불구하고 모형의 부합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즉, 자유도 1의 상실에 비해 χ^2 값이 3.84(.05 양방 수준)이상으로 감소하면 간명성이 상실되었는데도 부합도가 유의미하게 증가된 것으로 간주하여 큰 모형이 더 부합된 모형이라고 판정하게 된다. 그러나 본 모형에서는 47.271-45.266=2.005여서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아 자기효능감에서 행동억제체계의 경로를 추가한 모형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FI(비교부합치)도 자유도에 따른 오차를 감소시켜 그 영향을 배제하고 모형을 비교하는 지수로서 큰 모형과 작은 모형의 간명성의 차이가 실질적인 것인지 파악하는 값이다. 그 차이가 .01을 초과하면 두 모형 간 간명성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 경우 작은 모형(미지수가 작고 자유도가 큰 모형)을 더 부합하다고 선택하게 된다. 본 모형에서 그 차이는 .927-.901=.026으로 나타나 .01을 초과하였다.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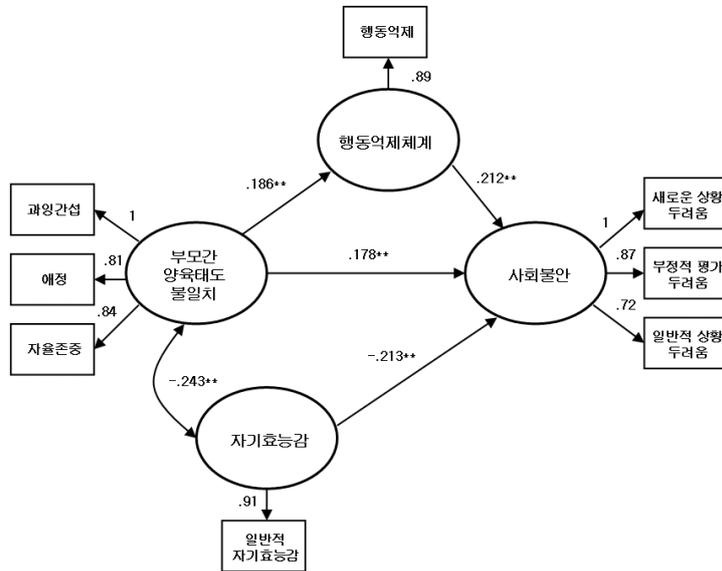


그림 2. 양육태도불일치가 사회불안에 끼치는 자기효능감과 행동억제체계의 통합모형

서 자기효능감에서 행동억제기질로의 경로는 배제하였다.

논 의

부모간 양육태도 불일치와 고등학생의 사회불안과의 관계에 행동억제체계와 자기효능감을 통합한 가설 모형을 설정하고 그것을 검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우선 부모의 양육태도 불일치가 고등학생 자녀의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양육태도 그 자체가 자녀의 사회불안이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는 다른 시사점을 제공한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도 부모간 양육태도 불일치와 고등학생의 사회불안의 직접 경로가 유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부모간 양육태도 불일치와 자녀의 정신건강 혹은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던 일련의 선행연구들(한미녀, 2004; Ingoldsby et al., 1999; Jouriles & Murphy, 1991; Lee et al., 2005)의 결과를 더 명확히 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연구 결과는 자녀의 문제행동과 가정환경과의 관계에 부모간 양육태도 불일치가 중재효과 혹은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했던 연구자들(Gomulak-Cavicchio et al., 2006; O'Leary & Vidair, 2005; Shaw et al., 1999; Sturge-Apple et al., 2006)에게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청소년, 특히 고등학생이 부모가 자신을 양육하거나 지도하는 가운데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 그 자체보다 부모의 갈등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과 관련하여 부모간에 갈등이 생기면 자녀는 수치심과 자책감이 심해져 그런 불안이 유

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부모간에 양육방식에 관한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런 차이를 조절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불일치를 자녀가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갈등이 심한 부부들이 신체적 공격까지 하면서 싸우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빈번히 보고하는 것이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불일치이다(Straus, Celles, & Steinmetz, 1980). Woodin와 O'Leary(2006)가 그들의 연구과정의 마지막에서 갈등이 심한 부부들을 면접하면서 부부갈등 중재 프로그램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을 질문하였더니 남편과 아내들이 대부분 자녀교육 원칙에 불일치를 극복하는 방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부모들도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의 차이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런 차이가 서로에게 갈등을 키운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그것이 그들의 부부관계 혹은 결혼생활에 뿐 아니라 자녀의 미래의 사회성에 문제를 갖게 하고 행동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행동억제 성향이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된 일련의 선행연구들(오경자, 양윤란, 2003; Hayward et al., 1998; Mick & Telch, 1998; Schwartz et al., 1999)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처벌과 위협 단서에 민감하여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행동억제체계는 사회적 상황에서 청소년을 충분히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Quay(1993)는 행동억제체계의 민감성이 떨어지면 행동의 부정적 결과의 신호가 감지되어도 억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지만, 행동억제체계의

민감성 수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불안장애의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대학생의 경우 행동억제 성향은 사회불안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허재홍, 2005)가 있었고, 이 관계에 지능 등과 같은 조절변인이 있다는 주장(Asendorpf, 1994)도 있어 이 관계는 계속 탐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행동억제체계가 사회불안 세하위변인과 모두 상관이 있었다. 다시 말해, 행동억제 성향이 높은 청소년들은 남의 평가를 두려워하여, 새로운 대상을 두려워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사회불안의 특성상 행동억제체계가 친숙하지 않은 상황이나 낯선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지만, 행동억제체계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행동억제체계가 부모간 양육태도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억제체계가 기질이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Kagan과 Snidman(1991)은 성장하면서 환경적 원인에 의해 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부모가 자신을 양육하는 것과 관련하여 논쟁하는 것 때문에 자녀가 사회상황에서 행동을 억제하려는 성향이 강해질 수 있다. 부모간에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을 가지고 의견이 다르면 상대의 양육방식 때문에 자녀가 어떤 행동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그 때 자녀는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 다툰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인간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더 집중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자녀와 관련된 내용을 논쟁하는 것은 자녀의 행동을 질타하고 그 결과를 직접적으로 처벌하

는 것 이상의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어, 행동의 발현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런 행동억제 성향이 불안장애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행동억제 기질도 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전문적 개입을 통해 그것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부모간 양육태도 불일치와 고등학생의 불안장애와의 관계를 중재하고 있었다. 조명숙과 이영호(2001)의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사회적 사건에 대한 확률평정이 부담 정도 평정의 매개를 통해서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만 유의미하였다. 다시 말해, 자기효능감이 높을 경우 사회적 상황에서 좋지 못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지각하여도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스트레스에 관한 인지적이론(Lazarus & Folkman, 1984)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에게 해가 될 부정적인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여도, 그런 외부의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되지 않아 과도하게 긴장하지 않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간 양육태도의 불일치를 자기효능감이 조절하면서 사회불안의 양상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는 자기효능감이 독립적으로 또는 부모양육태도의 불일치를 완화하여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중재변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일련의 선행연구들(문혁준, 1999; 우희정, 이숙, 1994; 전인옥, 1997)에서도 밝혀졌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은 부모간 양육태도 불일치도 자기효능감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부모간에 자녀와 관련하여 논쟁을 벌이는 것은 부모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이상으로 자녀가 지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아지지 않았을 것이고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아 사회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성장하면서 그런 가정환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탈동일시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상담 혹은 심리치료 전문가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회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부모의 영향을 받아 그렇다면 그들을 위한 상담 혹은 심리치료에 탈동일시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그들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인지행동적 개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Katz(1988)는 가정에서의 논쟁과 분노 표현이 없을 수는 없지만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도록 그 강도와 빈도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녀는 우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매우 상세한 부분까지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생각이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다시 말해, 부부 간에 자녀양육에 관한 세세한 문제까지 의견 일치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자녀양육에 대한 배우자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자녀에게 정말 해로운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것이 정말 해롭다고 생각된다면 배우자와 논의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기 위해 아동상담 전문가, 소아과 의사, 종교 지도자 등과 먼저 그 문제에 관해 상의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부부간에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

을 완전히 일치시키려 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무리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좋지 못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런 노력을 해야 할 뿐 아니라, 그런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행동억제기질에도 전문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상담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사회불안의 원인을 탐구하면서 가정환경을 조명할 것이나 그 중에도 부모간의 갈등, 특히 부모간 양육 방식 혹은 태도의 불일치 정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평가 결과 성장과정에서 부모간의 양육태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그것에 의해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가족 상담을 통해 부모간의 양육태도 불일치에 따른 갈등이 청소년 자신에게서 유발된 것이 아니라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행동억제기질에도 자기주장 훈련이나 행동수정 전략을 통해 개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간 양육태도 불일치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차이를 절대값이기 때문에 특정 양육태도에 아버지가 우세한지, 아니면 어머니가 우세한지와 관련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추후 연구에서 부모의 영향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지, 즉 개인-환경 적합도(person-environment fit)를 검증하면 또 다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듯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란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이다. 따라서 종단적 연구가 수행된다면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가 수도권에 있는 5개의

고등학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심리측정 도구들이 목적한 변인들의 개념을 완벽히 측정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런 점은 추후연구를 통해 보완되리라 생각된다.

한국 부모들과 교육자들은 고등학교에 재학 시기가 미래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그 시기에 가질 수 있는 사회불안에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정신건강에 부모간의 갈등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교현, 김원식 (2001). 한국판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BAS/BIS)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 19-37.
- 문혁준(1999). 아동기의 부모 자녀 양육태도와 대학생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 141-151.
- 문혜신, 오경자 (2002).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429-443.
- 송지영 (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형태 검사 (Parental Bonding Instrument):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경정신의학*: 31, 979-991.
- 오경자, 양윤란 (2003).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I: 행동억제 기질, 부모양육태도 및 외상경험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 557-576.
- 우희정, 이숙 (1994).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 효능감 간의 인과모형탐색. *아동학회지*: 15(1), 71-90.
- 전인옥 (1997). 어머니의 교육신념과 자기효능감.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24, 657-684.
- 조명숙, 이영호 (2001). 부정적인 사회적 사건의 발생 확률 판단 및 부담 정도 판단과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 93-103.
- 한미녀 (2004). 부와 모의 양육태도 차이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3, 279-291.
- 허재홍 (2005). 대학시기 사회불안 발생의 심리적 기제: 행동억제기질, 부모양육태도, 및 외상경험의 영향. *학생생활연구*, 17, 71-85.
- 허재홍 (2006). 부모양육태도, 완벽주의,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 593-611.
- 허재홍, 조용래 (2005). 자기불일치와 사회불안이 대학생의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5(2), 85-10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rrindell, W. A., Kwee, M. G. T., Methorst, G. J., Van Der Ende, J., Pole, E., & Moritz, B. J. M. (1989).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 of agoraphobic and socially phobic inpatient.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5, 526-535.

- Asendorpf, J. B. (1994). The malleability of behavioral inhibition: A study of individual developmental fun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30, 912-919.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ron, R. M., & Kenny, D.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ruch, M. A., & Heimberg, R. G. (1994).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parent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between generalized and nongeneralized social phobic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8, 155-168.
- Bruch, M. A., Heimberg, R. G., Berger, P., & Collins, T. M. (1989). Social phobia and perceptions of early parent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nxiety Research*, 2, 57-63.
- Carver, C. S., & White, T. L. (1994). Behavioral inhibition, behavioral activation, and affective responses to impending reward and punishment: The BIS/B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319-333.
- Dillon, W., & Goldstein, M. (1984). *Multivariate Analysis L Methods and Applications*. New York: John Willy & Sons, Inc.
- Edelman, R. J. (1985). Dealing with socially embarrassing events: Socially anxious and non-socially anxious groups compared.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 281-288.
- Gomulak-Cavicchio, B. M., Davies, P. T., & Cummings, E. M. (2006). The Role of Maternal Communication Patterns About Interparental Disputes in Associations Between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 757-770.
- Gray, J. A. (1990). Brain systems that mediate both emotion and cognition. *Cognition and Emotion*, 4, 269-288.
- Grich, J. H., & Fincham, F. D. (1993). Children's appraisals of marital conflict: Initial investigations of the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64, 215-230.
- Hayward, C., Killen, J. D., Kraemer, H.C., & Taylor, C. B. (1998). Linking self-reported childhood behavioral inhibition to adolescent social phobia.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7, 1308-1316.
- Ingoldsby, E. M., Shaw, D. S., Owens, E. B., & Winslow, E. B. (1999). A longitudinal study of interparental conflict, emotional and behavioral reactivity, and preschoolers' adjustment problems among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7, 343-356.
- Jerusalem M., & Schwarzer R. (1992). Self-efficacy as a resource factor in stress appraisal processes. In R. Schwarzer (Eds.), *Self-efficacy: Thought control of action* (pp. 195-213). Washington, DC: Hemisphere.
- Jouriles, E. N., & Murphy, C. M. (1991). Marital Adjustment, Parental Disagreements About Child Rearing, and Behavior Problems in Boys: Increasing the Specificity of the Marital

- Assessment. *Child Development*, 62, 1424-1433.
- Kagan, J., & Snidman, N. (1991). Temperamental factors in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46, 856-862.
- Katz, L. G. (1988). Child-rearing disagreements. *Parents*, 63, 170.
- LaGreca, A. M. (1998). *Manual for the social anxiety scal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Miami, FL: Author.
- Last, C. G., Hersen, M., Kazdin, A. E., Orvaschel, H., & Perrin, S. (1991). Anxiety disorders in children and their famili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8, 928-934.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ee, C. M., Beauregard, C., & Bax, K. A. (2005). Child-Related Disagreements, Verbal Aggression, and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 237-249.
- Mcdonald, K. A., & Parke, R. D. (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5, 1267-1277.
- Mick, M., & Telch, M. (1998). Social anxiety and history of behavioral inhibition in young adul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2, 1-20.
- O'Leary, S. G., & Vidair, H. B. (2005). Marital Adjustment, Child-Rearing Disagreements, and Overreactive Parenting: Predicting Chil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 208-221.
- Parker, G. (1979). Reported parental characteristics of agoraphobia and social phobia.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5, 555-560.
- Schwartz, C. E., Snidman, N., & Kagan, J. (1999). Adolescent social anxiety as an outcome of inhibited temperament in child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8, 1008-1015.
- Shaw, D. S., Vondra, J. I., Hommerding, K. D., Keenan, K., & Dunn, M. (1994). Chronic family adversity and early childhood behavior problems: A longitudinal study of low income famil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09-1122.
- Shaw, D. S., Winslow, E. B., Owens, E. B., & Hood, N. (1998). Young children's adjustment to chronic family adversity: A longitudinal study of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7, 545-553.
- Stein, M. B., Walker, J. R., & Forde, D. R. (1996). Public speaking fears I a community sample: Prevalence impact on functioning and diagnostic classific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3, 169-174.
- Straus, M. A., Celles, R. J., & Steinmetz, S. K. (1980). *Behind closed doors: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Garden City, NY: Anchor Books/Doubleday.
- Sturge-Apple, M. L., Davies, P. T., & Cummings, E. M. (2006). Hostility and Withdrawal in Marital Conflict: Effects on Parental Emotional Unavailability and Inconsistent Disciplin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0, 227-243.
- Tschann, J. M., Flores, E., Pasch, L. A., & Marin, B. V. (1999). Assessing interparental conflict:

- Reports of parents and adolescents in European American and Mex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269-283.
- Wallace, S. T., & Alden, L. E. (1997). Social and positive social events: The price of succes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3, 416-424.
- Weiss, B., Dodge, K. A., Bates, J. E., & Pettit, G. S. (1992). Some consequences of early harsh discipline: Child aggression and maladaptive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style. *Child Development*, 163, 1321-1335.
- Woodin, E. M., & O'Leary, K. D. (2006). Partner aggression severity as a risk marker for male and female violence recidivism.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2, 283-296.
- 원 고 접 수 일 : 2007. 2. 21
수정원고접수일 : 2007. 5. 1
계 재 결 정 일 : 2007. 5. 10

The Influence of Child Rearing Disagreement on Social Anxiety of High School Students: Focus on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BIS and Self-Efficacy

Kyung Hyun Suh **Jhe Min You** **Shin Hye Choi**
Sahmyook University **Kangnam University** **Sahmyook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child rearing disagreement on social anxiety, and investigate the effect of behavioral inhibition system (BIS) and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rearing disagreement and social anxiety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480 Korean high school students (186 males and 294 females) from 5 high schools located in Seoul and suburb, whose ages ranged from 15 to 19 ($M=16.58$, $SD=.82$). The psychological tests used in this research included the following: the Korean version of Parker's Parental Bonding Instrument, LaGreca's 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 the Korean version of Carver & White's BAS/BIS Scale, and Jerusalem & Schwarzer's General Self-Efficacy Scale. Results indicated that child rearing disagreement was significant predictor of social anxiety among high school students. It was found that self-efficacy play the role of moderating effect and behavioral inhibition play the role of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 of child rearing disagreement to social anxiety. These findings suggest role of child rearing disagreement for adolescents' mental health and problem behaviors. And the suggestion for future study, and self-efficacy promotion and de-identification for adolescent who experience social anxiety were discussed.

Key words : adolescent, child rearing disagreement, behavioral inhibition, self-efficacy, social anxiety